

朝鮮時代 昌德宮 熙政堂의 便殿 轉用에 대하여

金東旭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序

『宮闕志』에 의하면, 昌德宮의 熙政堂은 「大造殿의 남쪽에 있으며 즉 便殿인데 나랏일을 보는 곳이다」고 하였다. 아울러 宣政殿에 대해서 「仁政殿의 동편으로, 옛날의 편전이다」고 하였다.

궁궐에서 편전이라고 하면 常參 즉 임금이 신하들과 정례적으로 예를 나누는 의식을 수행하고 經筵이라고 해서 어전에서 經書를 강론하는 장소이며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신하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곳이다. 편전은 국가의 공식 행사를 거행하는 正殿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이다. 그런데 창덕궁의 경우 이 편전 건물이 옛날에는 선정전이었다가 궁궐지가 편찬되던 당시에는 회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창덕궁은 조선후기에는 왕조의 정궁으로 사용되어 온 궁궐이다. 이 궁궐에서 편전이 선정전에서 회정당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용도가 바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궁궐 전체의 공간 사용의 변화를 의미하며 또한 건물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회정당은 본래 修文堂이라는 건물을 1496년(연산군2)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창덕궁이 소실될 때 불에 타 없어졌다가 궁이 재건되면서 회정당으로 다시 지어졌고 1623년(인조즉위년) 인조

반정시 소실되었다가 1647년(인조25) 다시 지어졌다. 이 때의 건물모습은 『昌德宮修理都監儀軌』와 『東闕圖』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시 1833년(순조33)에 소실되고 이듬해에 재건되었는데 재건된 건물은 규모나 형태가 대체로 소실전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917년에 궁의 內殿이 모두 소실되면서 불에 타 버렸고 1920년에 재건되었는데 이 때는 景福宮의 康寧殿 재목을 가지고 재건하면서 건물규모나 형태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현존하는 회정당은 비록 위치상에 큰 변화는 없지만 조선시대 편전으로 쓰이던 건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일반적인 편전 건물은 넓은 기단을 갖추고 실내는 전돌을 깔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회정당은 건물형태에서도 일반건물처럼 기단을 넓게 두는 것이 아니고 기둥이 지면위에 높이 세워지고 그 위에 건물 바닥이 설치되는 독특한 것이고 바닥은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색다른 유형의 건물이 뒤에 편전으로 전용되게 된 것은 궁궐내의 건물 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회정당의 건물형태나 용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시대 궁궐건축을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수문당에서 회정당으로 당호가 변경되는 과정과, 현재 건물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17세기의 회정당 건물모습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회정당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慶熙宮의 興政堂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회정당의 건축 성격을 구체화하고, 이어서 회정당이 편전으로 전용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정당의 편전 전용이 갖는 宮闈史上의 의미를 고찰해 보자 한다.

1. 1496년(연산군 2) 修文堂의 熙政堂 改稱

창덕궁내에 회정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연산군 2년에 왕이 修文堂이라는 기존의 건물 당호를 회정당으로 변경하면서 비롯되었다. 수문당은 본래 임금의 학문을 닦는 장소로, 침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정치를 넓힌다는 뜻에서 드러나듯이 당호를 熙政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이 건물을 학문장소에서 정치하는 장소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1496년에 수문당의 당호를 고치기 전에 수문당은 한차례 가벼운 화재들 만났고¹⁾ 얼마 뒤에 왕은 대조전을 중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수문당을 고쳐 짓도록 명하였다.²⁾ 이 명에 대하여 승정원 관리들은 “대조전 수문당은 성종께서 26년 동안 거처하시던 곳이며, 태종 세종께서 또한 거처하셨음”을 상기하며 고치지 말 것을 아뢰었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³⁾ 그리고 이 해 12월8일에는 회정당으로 편액을 하도록 명하였다.

편액의 변경에 대해서도 승지등이 반대의 뜻을 올려 말하기를 “이 당은 성종께서 26년간 거처하던 곳입니다. 이미 인정전 선정전이 있는데 또 崇文으로 이름한 것은 여기서 정사를 들을 뿐 아니라 글을 닦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정으로 이름하는 것이 아름답기는 합니다만은 조종께서 거처하던 당의 이름을 지금와서 고치는 것이 온

당치 않은 듯합니다.”고 하였는데 왕은 “이미 회정당이라 편액하였다. 그러나 또 崇文堂 새 글자를 써서 드리게 하라.”고 답하였다.⁴⁾ 결국 당호는 수문당에서 회정당으로 변경되고 아울러 승문당이라는 편액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⁵⁾

수문당이 창덕궁에 언제 지어졌는지 확실치 않다. 창덕궁은 1405년(태종5)창건되고 1461년(세조7)에는 내전 중요 전각의 당호를 새로 제정하였는데 실록에는 이 시기까지 수문당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496년 6월14일 실록기사에서 처음으로 수문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수문당의 용도가 왕이 학문을 닦는 곳이라는 점은 건물 당호에서나 앞서 인용한 실록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왕의 침전 주변에 이처럼 왕의 학문소를 두는 사례는 이미 고려시대 궁궐에서도 동일한 修文殿이라는 건물을 둔 예를 볼 수 있고⁶⁾ 조선시대

2) 『燕山君日記』 2年 8月 癸巳.

3) 『燕山君日記』 2年 8月 丙申.

4) 『燕山君日記』 2年 12月 申巳.

5) 종래 연산군일기 2년 12월8일기사에서 修文堂을 崇文堂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修文의 誤記로 추정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보다는 왕이 새로 당호를 회정으로 하면서 동시에 승문이라는 당호도 같이 걸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록에서 이 건물을 승문으로 적은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 후에도 간혹 수문과 승문을 혼동해서 기록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즉 연산군일기 4년 3월25일 기사에서는 왕이 「修文堂」 앞문에 남시어 김일손등을 국문하였다고 적었고 또 명종실록 20년 4월9일 기사에서는 의려를 설치하면서 그 장소를 「선정전 동쪽 崇文堂」에 설치한다”고 적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연산군4년의 김일손을 국문한 장소에 대해서는 「궁궐지」, 「경복궁, 조예 修文堂」을 기재하고 여기서 왕이 김일손을 국문하였다고 적어서 수문당이 경복궁에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당시 연산군은 줄곧 창덕궁에 있었고 실제 김일손을 국문한 것도 창덕궁의 수문당이라고 실록에 명시되었으므로 「궁궐지」의 수문당 경복궁 운운은 내용상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6) 『高麗史』(世家, 卷16, 仁宗2)의 인종16년 기사에

1) “창덕궁 수문당에서 화재가 났다가 곧 꺼졌다.”
(『燕山君日記』, 2년 6월기축).

에는 昌慶宮의 崇文堂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⁷⁾ 연산군은 이 건물의 당호를 회정당으로 고치면서도 신하들의 이의 제기가 있자 승문당이라는 또 하나의 편액을 같이 걸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도 이 건물이 임금의 학문소 기능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건물 당호가 수문에서 회정으로 바뀌에 따라 이 건물은 단지 왕의 학문소의 용도가 아니라 정치를 의논하는 정치소로서의 의미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궁궐 내에 정치장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본래 궁궐의 당호는 각 건물의 용도를 반영한다. 조선전기 궁궐에서 당호에 정치를 뜻하는 「政」자를 사용하는 것은 경복궁에서 정전인 勤政殿과 편전인 思政殿에 한정되고 창덕궁에서는 仁政殿과 宣政殿, 창경궁에서는 明政殿과 文政殿뿐이었다.⁸⁾ 그런데 창덕궁에서 회정당이라는 「政」자를 사용한 당호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유독 창덕궁에서 정치를 논하는 장소로서의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창덕궁의 경우 인정전과 선정전의외에 또 하나의 정치를 논하는 건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전기에 회정당이 어디에 위치하였고 그 건물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전혀 확인이 안된다. 다만 실록의 기록으로 미루거나 또는 17세기에 재건된 모습등을 고려할 때 회정당의 위치가 선정전의 동쪽, 大造殿의 앞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될 따름이다.

연산군 실록에는 성종이 대조전과 수문당에서 26년간 거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서 두 건물이 인접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명종실록에는 승문당이 선정전의 동쪽에 있다고 적은 기사가 보인다.⁹⁾ 17세기에 재건된 창덕궁에서 회정당은 대조전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진왜란후 창덕궁이 재건될 때 기본적인 구성은 소실전 모습으로 재건하였다고 한다.¹⁰⁾ 따라서 회정당은 소실전

측 조선전기에도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선정전의 동쪽, 대조전 앞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수문당이 본래 왕의 학문소였고 그 위치가 내전의 정전인 대조전의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1496년 수문당을 회정당으로 변경한 것은 결국 대조전 앞에 또 하나의 정치 장소가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15세기 말에 창덕궁의 공간 배치상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 17세기 회정당의 건물형태

회정당의 건물위치나 건물형태는 17세기에 재건된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 재건공사를 하면서 작성된 의례서와 「東闕圖」에 묘사된 모습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정당은 대조전의 앞에 위치하며 건물형태는 전면이 누각식으로 되어 지면위에 기둥이 세워지면서 건물바닥이 지상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실내 바닥은 온돌과 마루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17세기의 회정당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昌德宮修理都監儀軌」의 관련 기사와 「東闕圖」가 있다.

「창덕궁수리도감의례」는 1647년(인조25)에 궁의 내전을 재건하면서 그 공사과정을 적은 사료이므로

7) 창경궁 승문당은 당호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왕의 학문소로 쓰이던 건물인데 명정전의 서쪽, 문정전의 뒷편에 위치하였다. 1633년(인조11) 창경궁을 수리하면서 적은 「昌慶宮修理所儀軌」에 이 건물을 수리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임진왜란 후 재건시에도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물론 이 밖에도 경복궁이나 창덕궁등에는 「承政院」건물이 있고 창덕궁에는 齋政閣이 있었지만 이것은 왕이 정사를 논하는 건물과는 다른 건물로 이해된다.

9) “전교하기를, 의려는 선정전 동쪽 승문당에 설치하라.”(「明宗實錄」, 20年 4月 乙亥).

10) 「光海君日記」, 2年 2月 己未조에 “昌德宮即殿宇維復古制...”라고 하여 창덕궁은 고제에 따라 복구하였다고 하였다.

「文德」殿을 「修文」으로 변경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문덕전은 본래 서적을 보관하고 「御書房」으로 불리기도 하며 講讀의 의식을 거행하는 등 왕의 학문소 구실을 하던 건물이었다.(同, 卷11, 肅宗원년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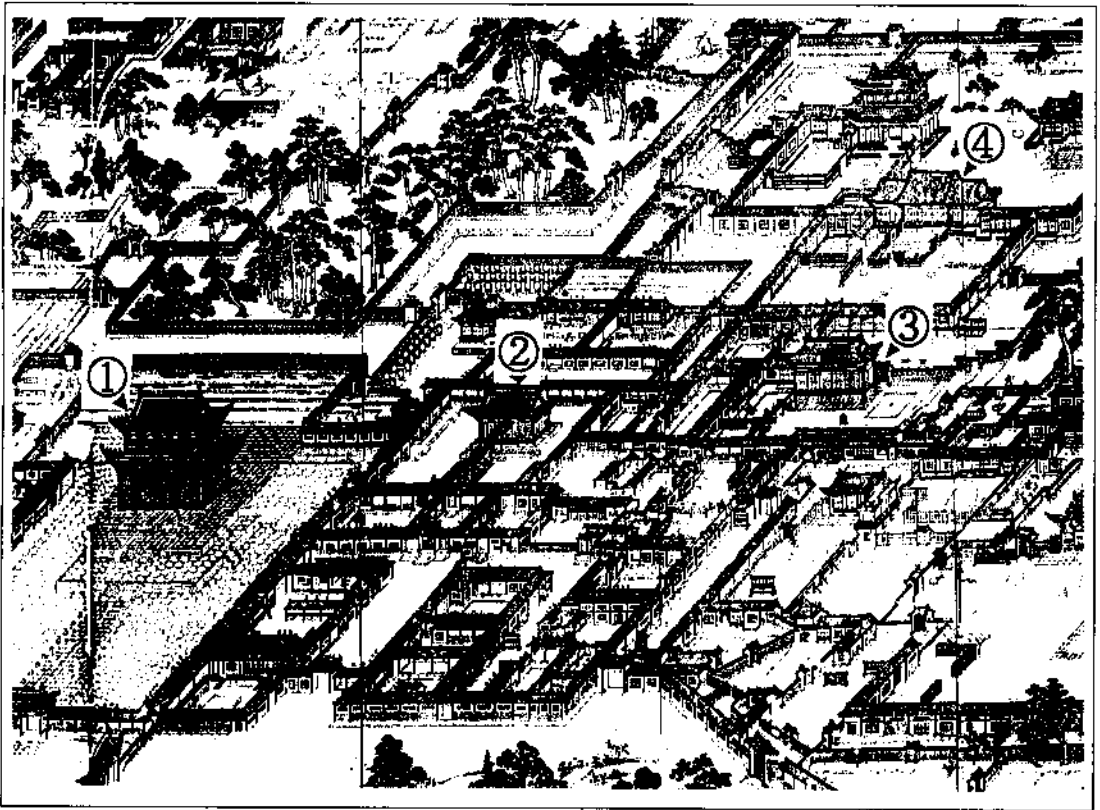


그림-1 「동국도」에 묘사된 회정당 주변

(①은 정전 인정전, ②는 구 편전 선원전, ③은 회정당, ④는 침전 대조전)

이 시기에 재건된 회정당의 모습을 참고할 수 있는 일차적인 사료가 된다. 동국도는 1827년경에 창덕궁의 전모를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그런데 창덕궁은 1647년에 재건된 이후 1827년까지는 궁궐 전체 구성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는 겪지 않았고 부분적인 건물의 증축이나 소실을 겪었다. 특히 회정당 주변의 내전 일곽은 거의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동국도는 17세기 회정당과 그 주변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인정된다.

창덕궁수리도감의례의 2소, 「造成秩」에는 이 때 조성된 회정당 건물에 대하여

「熙政堂十五間八雀內 東西溫突六間抹樓 九間 鳳
斑子 紙斑子等具」

라고 적었다. 즉 회정당은 모두 15칸에 팔작지붕이며 실내는 동서에 6칸 온돌이 있고 9칸이 마루이며 천장은 봉반자와 지반자로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동국도에 묘사된 회정당을 보면 우선 건물의 위치가 선정전의 동쪽으로 대조전 남쪽 앞에 놓여 있어서 대체로 조선전기의 기사와 일치하고 있다. 즉 회정당은 조선전기 수문당 시절에 지어졌던 위치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종의 누각 건물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지붕은 전형적인 팔작지붕이고 정면 칸수는 5칸이다. 지면에 낮은 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전면으로 여섯 개의 들기둥이 세워지고 다시 동쪽 측면에 두 개의 들기둥이 세워진 모습이다. 들기둥 위로는 나무기둥 여섯이 세워지고 기둥사이에는 전면에 창호가 가설되었는데 하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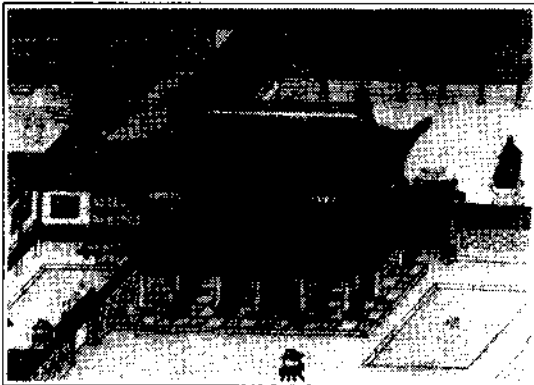


그림-2 「동궐도」에 묘사된 회정당 모습

머름 청판이 가설되고 창문 상단에는 고창이 마련되었다. 지붕에는 쥐두와 용두 잡상 등이 올려져 있다. 또한 돌기둥이 세워진 전면은 한 칸 폭으로 바닥이 들어가 있고 안쪽 서쪽 끝 부분에 온돌용 아궁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전면의 4칸에는 윗층 바닥에 이르는 사다리가 그려져 있다.

동궐도의 그림과 창덕궁수리도감의계의 규모 및 공사에 소요된 자재 종류등을 종합하여 회정당의 평면 추정안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¹¹⁾

아직 더 검토의 여지는 있지만 추정된 평면안을 보면 전면 5칸에 걸쳐 마루가 설치되고 뒷면은 동쪽에 4칸의 온돌방이 있고 중앙 4칸에 마루 그리고 서쪽에 2칸의 온돌방이 있는 모습이다. 천장은 봉반자와 지반자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마루부분의 천장이 봉황을 그린 봉반자이고 온돌방 부분은 종이를 바른 지반자로 보인다. 그리고 건물의 외관은 동궐도에 묘사되어 있듯이 누각식의 높은 바닥을 두고 전면에 바닥에 오르는 사다리가 가설된 형태이다.

회정당의 이러한 모습은 궁궐에 지어지는 일반적인 건물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난다. 우선 건물이 높은 기단위에 세워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전면에 여섯 개의 돌기둥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서 마치 누각의 외관을 연상시킨다. 사다리가 건물 전면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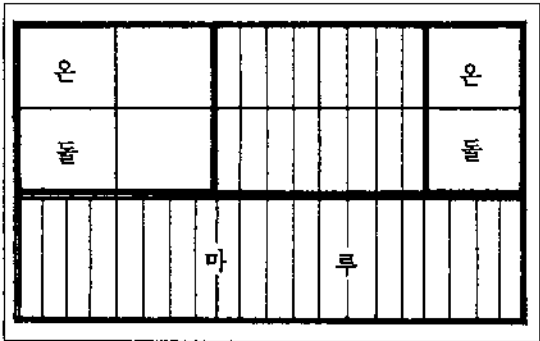


그림-3 1647년 재건시 회정당 평면의 추정안 (김동욱, 「17세기 창덕궁 내전 조영」에 의함)

더욱이 이 사다리는 동궐도의 그림으로 미루어 항구적인 시설이라기 보다 필요시에만 설치했다가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임시적인 사다리와 같이 불안정해 보인다. 그림의 상태로 보아서는 이 건물은 건물 뒷편에 본래의 출입구가 있고 전면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어진 것인데 어떤 필요에 의해 임시적인 사다리를 가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¹²⁾

이처럼 17세기에 지어진 회정당은 대조전의 바로 앞에 위치하며 그 건물형태는 건물 정면이 누각식을 취하고 있고 실내는 전면 5칸의 비교적 넓은 마루와 뒷편의 동서 양쪽의 온돌방과 중앙의 마루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루 부분의 천장은 봉반자, 온돌부분은 지반자로 마감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12) 「東闕圖」에 의하면 회정당의 뒤로는 행각이 북쪽으로 이어져서 대조전의 출입문으로 연결된 모습이 보인다. 이것으로 미루어 회정당은 건물 외 정면은 지면에서 실내 바닥의 높이에 차이가 나지만 뒷면은 지면과 실내 바닥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사한 형태는 창경궁 승문당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면의 고저차이는 19세기까지는 유지되다가 1917년 창덕궁 내전이 소실되고 1920년 재건될 때 지면을 크게 개조해서 현재와 같이 회정당의 앞 뒤 지면이 평탄한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김동욱, 「17세기의 창덕궁 내전 조영」(壬辰倭亂以後의 造營活動에 對한 研究, 1992).

3. 昌慶宮 崇文堂과 慶熙宮 興政堂

熙政堂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건물형태에서도 공통된 점을 보이는 건물로 창경궁의 崇文堂과 경희궁의 興政堂이 있다. 두 건물이 모두 광해군때 처음 조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회정당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건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특히 경희궁 흥정당은 건물의 위치나 형태등에서 회정당과 거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광해군때 조성한 仁慶宮에서도 회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和政堂이 지어져 역시 회정당과의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창경궁 승문당은 당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의 학문소로 지어진 건물이다. 1616년(광해군8)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창경궁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새로 창건된 것으로 짐작되며 『東闕圖』에 당시의 건물모습이 묘사되어 있다.¹³⁾ 동궐도에 의하면 이 건물은 편전인 문정전의 바로 뒷면에 있고 궁의 내전과 외전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궐도에 그려진 승문당의 건물모습에는 회정당과 공통된 부분이 있다. 건물 정면에서 보면 하단에 기단을 노출하는 대신에 돌기둥이 지면에 세워지고 그 위에 기둥을 올려 건물이 누각 같은 모습을 한 점이 회정당과 공통된 점이다. 승문당은 1830년에 소실되었다가 1834년에 재건되어 이 때의 건물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은 더욱 회정당과 유사한 모습을 전한다. 즉 건물 정면에 5개의 높은 돌기둥이 세워지고 기둥 뒷면은 뒷간 부분 만큼 후퇴하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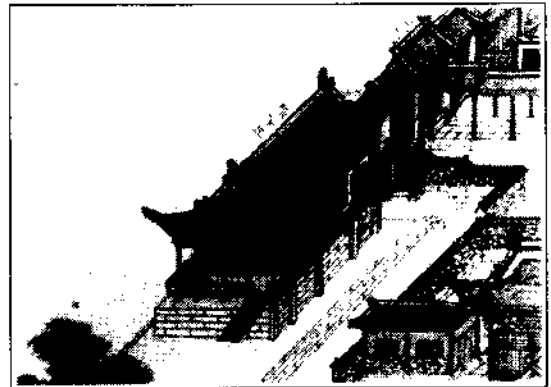


그림-4 「동궐도」에 묘사된 창경궁 승문당 모습

이 부분이 17세기의 회정당과 동일하다. 1834년 재건된 승문당의 실내는 온돌과 마루로 구성되었는데 이 후퇴한 빈 공간의 벽면에 온돌용 아궁이가 설치된 점도 회정당과 공통된다. 두 건물의 유사점으로 미루어 승문당은 광해군때 창건되면서 회정당의 건물 형태를 모범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경희궁 흥정당은 승문당보다 더 회정당과 유사한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다.

경희궁이 지어진 것은 창경궁이 복구되고 3년후인 1618년(광해군11)경이다. 창건시의 경희궁 건물 구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못하지만 『宮闕志』등 몇몇 문헌자료에서 정전과 편전 그리고 내전의 정전 등 궁궐의 핵심되는 부분의 건물구성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183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西闕圖案』에서 궁궐의 전체 모습을 알아 볼 수도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창건시의 경희궁은 崇政殿을 외전의 정전, 會祥殿을 내전의 정전으로 하여 資政殿 隆福殿등이 궁궐의 핵심 전각을 이루며 그 밖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물로 興政堂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흥정당은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승정전 자정전 다음으로 「政」자를 사용한 전각으로 창덕궁의 회정당과 공통점을 갖는다. 또 서궐도안에 그려진 모습에 의하면, 흥정당은 그 위치가 내 정전인 회상전의 남쪽 바로 앞에 있어서 창덕궁의 대조전과 회정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이다.

13) 金東賢, 「창경궁내 유물」, (『昌慶宮重建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88)에서 승문당을 광해군때의 재건 또는 창건으로 비정하였는데, 영조실록에서 “此堂即光朝所建”이라고 명시하였듯이 이 건물은 조선전기에는 없었고 광해군때 창경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건물은 『昌慶宮修理所儀軌』, (1633)에서 건물의 수리만 이루어졌다고 적혀있듯이 1623년 이괄의 난 때도 소실을 면하였고 1830년 화재 때까지 존속하였으므로 1827년경 작성된 「동궐도」에 묘사된 건물은 바로 광해군때 건립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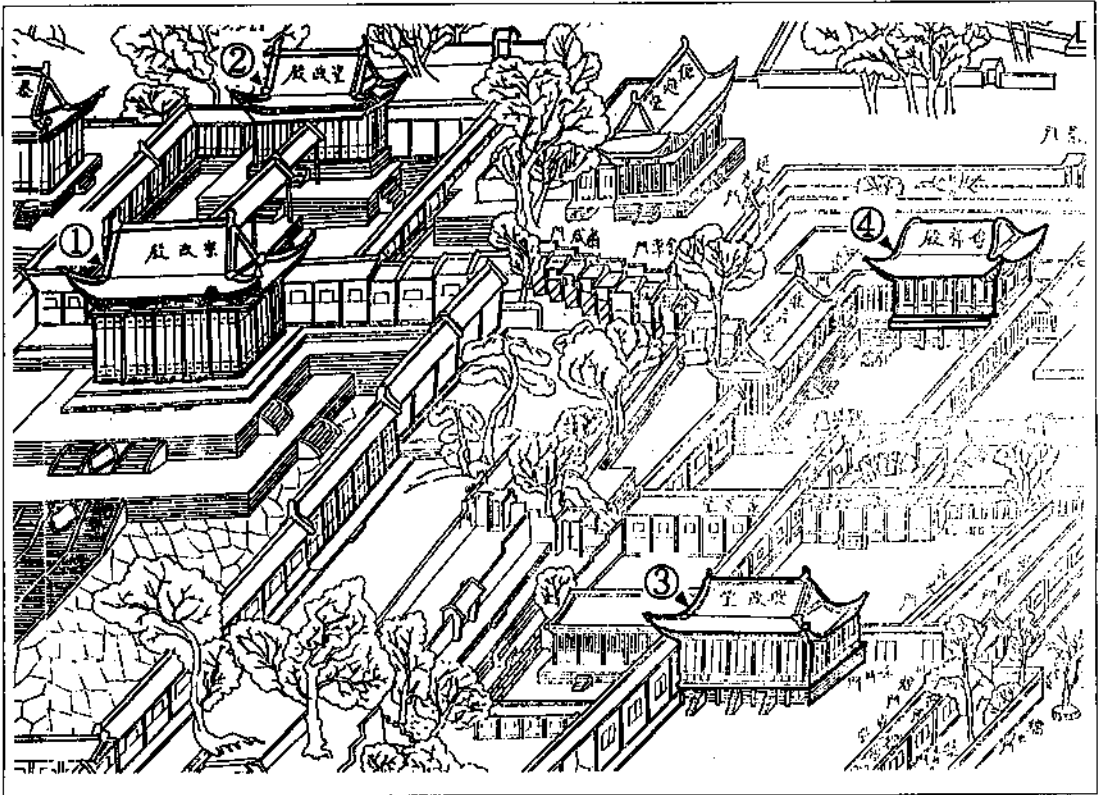


그림-5 「서궐도안」에 묘사된 흥정당 주변모습
 (①은 정전 승정전, ②는 후전 자정전, ③은 흥정당, ④는 침전 회상전)

건물의 형태에서도 흥정당은 회정당과 거의 동일하다. 정면이 4칸인 점은 다르지만 정면 하단에 들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올려 건물 바닥을 높인 점이나 들기둥에서 한 칸 물러난 빈 공간 뒤에 은돌을 위한 아궁이가 묘사된 점은 이 건물이 회정당과 완전히 동일한 건물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만 흥정당에서는 건물에 오르는 계단이 회정당처럼 임시적인 나무 계단으로 보이지는 않고 돌로 층계를 만들어 건물 앞에 축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흥정당에서는 정면으로 오르는 층계가 영구적인 시설처럼 보이는 점 정도이다.

「西關圖案」에 묘사된 경회궁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흥정당의 건물위치가 회상전 남쪽 앞이라는 것은 이미 창건당초부터 정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창건시라

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궐도안의 흥정당 건물 모습은 회정당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임은 확인이 되는 셈이다.

비록 건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회정당과 관련된 또 하나의 건물로 仁慶宮의 和政堂이 있다. 인경궁은 경회궁과 마찬가지로 광해군때에 창건된 궁궐이고 창건시 창덕궁에 준하여 건물구성등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 궁궐에서도 정전인 光政殿, 편전인 弘政殿의에 「政」자를 사용한 건물로 和政堂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14) 인경궁의 기본적인 전각 명칭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韓星國, 「仁慶宮考」, (『郷土서술』 제21호, 1969)와 金東旭, 「仁祖朝의 昌慶宮 昌德宮 造營」, (『文化財』, 제19호, 1986)을 참조. 한편 광해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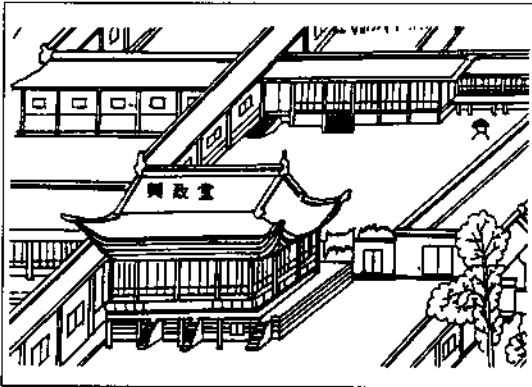


그림-6 「서궐도안」에 묘사된 흥정당 모습
(「서궐도안」에서 다시 그림)

이처럼 17세기에는 창경궁의 승문당, 경희궁의 흥정당, 인경궁의 화정당에서 창덕궁 회정당과 유사한 건물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유사한 건물들은 모두 광해군때에 창건된 것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본래 학문소로 건립되었던 승문당이 연산군때 회정당으로 바뀌어 정치 기능을 갖는 건물로 바뀐 뒤에 경희궁과 인경궁은 창덕궁의 그 제도를 본 받아 흥정당과 화정당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승문당과 흥정당에서는 건물 형태상에서도 전면 누각식 형태에 실내에 온돌과 마루를 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4. 熙政堂의 便殿 轉用

회정당이 편전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숙종조 17세기 말이다. 이 때에는 본래의 편전인 선정전과 회정당을 모두 편전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세기초인 순조대 이후에 와서 회정당이 공식적인 편전으로 사용되고 선정전은 옛날의 편전이라고 기록된다. 회정당과 여러모로 유사한 건물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한 후에 창덕궁의 소실된 건물을 재건하면서 인경궁의 건물을 철거하여 이축하게 되었는데 화정당을 헐어 회정당을 지었다.(『昌德宮修理擇監儀軌』, 1647년 참조) 여기서도 두 건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인 경희궁의 흥정당 역시 아무리 늦어도 정조조 이전부터는 편전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래 편전 위치에 해당하던 건물인 자정전은 후전이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종류의 「宮闕志」 가운데 편찬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은 1695년(숙종21년)에 간행된 것이다. 이 궁궐지의 창덕궁조 선정전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치가 인정전¹⁵⁾ 동편에 있다는 기사만 실려 있고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반면 회정당에 대해서는 대조전 앞에 있다는 위치설명에 이어 「便殿」이라고 용도를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미 17세기말에 편전은 주로 회정당이 쓰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선정전은 여전히 편전으로 호칭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조대의 왕실관련 문헌중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회정당과는 별도로 편전이라는 건물을 지칭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¹⁵⁾ 아마도 이 때에는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선정전이 편전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회정당이 편전으로 이용되는 이중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공식적으로 편전이 선정전에서 회정당으로 교체

15) 왕실과 관련한 문헌은 왕조실록외에 『承政院日記』나 정조이후 작성된 『日省錄』등 방대한 양이 전하고 있다. 이들 문헌에서 실제 건물이 활용된 사례를 전부 정리하는 것은 우선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후일의 작업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우선 개략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18세기말 정조대의 약간의 승정원일기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이 시기까지 왕이 신하를 접견하는 것은 증신일 경우 주로 회정당이며 간혹 특별히 편전이라고 지칭한 곳에서 접견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정조20년 7월 한 달사이에 왕이 증신들을 만난 건물중 편전은 한 차례였고 회정당은 다섯차례였다.) 이 기사로 미루어 정조대에는 회정당은 단지 회정당으로 불리고 편전은 선정전을 지칭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제 활용면에서는 선정전은 자주 활용되지 않고 주로 회정당을 증신 접견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되었음을 전하는 기록은 19세기초에 편찬된 「宮闕志」에서이다. 숙종 조에 처음 편찬되었던 궁궐지는 중간에 증보를 거쳐 19세기초 헌종이 즉위하면서 내용을 크게 증보하여 편찬되었다.¹⁶⁾ 19세기에 편찬된 이 궁궐지에서 선정전은 「古之使殿」으로 기록되고 회정당을 「便殿卽視事之所」로 정의하고 있다. 궁궐지의 마지막 편찬 내용이 대체로 순조 대까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정전이 옛날의 편전이 되고 회정당이 당시의 편전이 되는 시점은 순조 대의 일로 판단된다.¹⁷⁾ 결국 19세기초에 이르러 창덕궁의 편전은 공식적으로 선정전에서 회정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편 경희궁의 경우 흥정당이 편전으로 공식화되는 것은 1776년인 정조 즉위 년이다. 이해 4월6일 실록기사에 「興政堂을 便殿으로 하고 顯謨門을 閤門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날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지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이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 왕세손 시절을 경희궁에서 보냈다. 이때 경희궁의 전체 건물구성등을 다룬 「慶熙宮志」를 직접 저술하였다.¹⁸⁾ 경희궁지에서 정조는 자정전과 흥정당을 모두 「治朝之殿宇」, 즉 나랏일을 보는 건물편에 집어넣고 자정전을 「崇政殿之後殿」이라고만 하고 흥정당은 「臣僚를 접견하고 講筵을 여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직 왕세손 시절이므로 흥정당을 편전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자정전에 대해서도 편전이라고 하지 않고 후전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이미 이 때에 자정전은 전혀 편전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왕위에 오르자 곧 흥정당을 공식적으로 편전으로 명명한 것이 앞의 실록 기사라고 생각된다.

회정당과 흥정당이 편전으로 전용된 것은 단지 두 궁궐에 국한된 예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적어도 조선후기 궁궐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주로 궁궐로 활용된 곳은 창덕궁과

경희궁 두 곳이었다. 나머지 또 한 궁궐이던 창경궁은 창덕궁과 담장을 같이하면서 동궐이라고 함께 취급되어 왔고 거의 왕이 머무는 경우는 없었다. 실제로 17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왕조의 궁궐로 쓰인 곳은 동궐의 창덕궁과 서궐의 경희궁 두 곳이었다. 따라서 동궐과 서궐 즉 창덕궁과 경희궁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두 궁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곳의 궁궐에서 회정당과 흥정당 두 건물이 각각 편전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은 이 두 궁궐만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조선후기 궁궐의 보편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즉 18세기 또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조선후기의 궁궐은 본래의 편전 대신에 침전 앞에 조성된 「政」자가 들어간 「堂」 건물을 편전으로 전용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5. 熙政堂 便殿 轉用의 건축적 의미

창덕궁에서, 편전이 선정전에서 회정당으로 바뀌게 된 것은 편전이 정전 부근에서 침전부근으로, 또 전돌 건물에서 온돌과 마루 건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유사한 변화는 경희궁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궁궐의 공간배치의 변화는 물론 실내에서도 의자식의 입식에서 온돌과 마루의 좌식으로 바뀌게 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선정전의 위치는 창건 이래로 인정전의 동편에

17) 「林下筆記」의 「宣政殿次對」에는 선정전이 인정전 동편에 있고 국초에 지은 것이라고 적은 뒤에 “而已純廟朝實對多行於此，後此殿用於不吉之時巡廢，是禮人皆惜之”라고 하여 순조 때까지 선정전에서 자주 임금이 조신들을 맞았다고 하고 건물이 불길하다고 하여 차대를 폐하여서 예를 아는 사람들이 애석히 여겼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이 기사도 순조 대에 선정전이 편전으로 쓰였으나 이후 활용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18) 정조가 직접 찬술한 「慶熙宮志」는 「弘齋全書」卷4 春邸錄에 실려있고 저술연대를 「甲午」년 즉 1774년(영조50)으로 밝히고 있어서 아직 왕세손으로 있으면서 경희궁에 머물고 있을 때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6) 현재 서울史料叢書 第3卷으로 영인된 「宮闕志」(서울市史編纂委員會刊, 1957年, 서울特別市)는 이 때 편찬된 궁궐지중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을 저본으로하여 영인한 것이다.

있었다. 그리고 다른 궁에서도 본래의 편전은 항상 정전의 뒷편이나 측면에 인접해서 위치하였다. 경복궁의 사정전이나 경희궁 자정전은 뒷편에 있는 예이고 창경궁 문정전은 명정전의 남쪽에 행랑으로 이어져 있다.¹⁹⁾

회정당이 위치한 곳은 침전의 바로 앞이다. 본래 이 건물이 왕의 학문소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은 회정당으로 고치기 전에도 학식이 높은 신하가 왕에게 경서를 강론하는 등 제한적으로 일반 관료의 출입이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편전이 되면서 관료의 출입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회정당은 위치상으로는 분명히 내전의 일곽에 속하지만 기능면에서는 외전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경희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희궁 흥정당 역시 위치상으로는 침전의 바로 앞으로 내전에 해당되지만 기능은 외전에 해당하였다.

이것은 궁궐 공간배치상의 큰 변화이다. 본래 궁궐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내전과 나랏일을 보는 외전은 공간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외전은 일반 관료의 출입이 가능하였지만 내전은 왕과 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왕의 측근에 있는 승정들이 출입할 뿐이고 일반 관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편전이 침전의 바로 앞으로 옮겨짐에 따라 비록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고위관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일반 관료의 출입지역이 내전 일부까지 확대된 것이다.

선정전의 실내 바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료를 종합해 볼 때 19세기말까지 전돌이 깔린 건물이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17세기의 『昌德宮修理都監儀軌』²⁰⁾

軌』²⁰⁾所,造成秩에는 다른 건물의 경우 바닥이 온돌이나 마루일 때 빠짐없이 내용을 적으면서 선정전에 대해서는 아무 기사를 남기지 않아 선정전 바닥이 온돌이나 마루가 아니었음을 시사해 주며 같은 부분에서 선정전과 주변 월랑 등을 작업하는 제2소의 소요자재중에 方磚이 7,500장이 소요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서 건물 바닥이 전돌이었음을 강력히 제시해 준다.

선정전의외에도 조선전기의 경복궁 사정전, 17세기의 창경궁 문정전 역시 건물 바닥이 전돌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²¹⁾ 본래 외정전의 옆이나 뒤에 세우던 편전은 바닥을 정전과 마찬가지로 전돌로 까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경희궁에서도 정전인 승정전 뒷편에 세웠던 자정전의 바닥은 전돌이었다고 짐작된다.²¹⁾

반면 적어도 17세기에 조성된 회정당의 바닥은 온돌과 마루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희궁 흥정당 역시 실내 바닥은 온돌과 마루로 추정되었다. 결국 편전이 선정전에서 회정당으로, 또는 자정전에서 흥정당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편전건물이 전돌

20) 조선전기 경복궁 사정전의 바닥이 전돌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이 건물이 의자울 놓아 임금이 신하를 접견하던 건물이었음은 「중종실록」 중종37년 11월 1일 기사에서 추정된다. 실록에 왕이 「평상시 경연은 사정전에서 으례 교의에 앉아서 하고 야대의 경우는 편복으로 임하고 있다. 이후로는 사정전에서 교의나 상榻을 치우고 편하게 앉을 것이며, 입시하는 신하들도 앞에 가까이 와서 야대를 하게 할 것이니, 정원은 알아두라」도 명한 대목이 있다. 또 창경궁 문정전은 「昌慶宮修理所儀軌」(1633년)의 제5소 기사에서 명정전과 문정전이 모두 전내에 御榻倚粧 즉 왕을 상징하는 어좌와 의자등을 갖추었음을 밝히고 있어서 역시 실내 바닥은 온돌이나 마루가 아닌 전돌로 짐작된다.

21) 자정전의 경우 1994년의 자정전지 발굴조사에서 건물바닥에 깔았던 전돌이 출토되었다. 이 전돌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것인지 판명이 되지 않았지만 온돌이나 다른 시설의 유구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자정전의 실내 역시 창건시부터 전돌이었다고 짐작된다.

19) 기능상으로 보아서 편전이 반드시 정전에 인접해 있을 필요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전과 편전은 궁궐의 공식적인 행사를 거행하는 장소이고 따라서 일반 문무 관료들이 건물주변에 접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두 건물은 침전이 있는 내전과는 거리를 두고자 하였고 그 결과 정전과 편전 두 건물이 외전의 일정한 위치에 서로 인접하여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닥 건물에서 온돌과 마루 바닥 건물로 바뀐 것이다.

바닥이 전들로 깔렸을 경우 실내 생활은 의자식의 입식이 되고 바닥이 온돌과 마루일 경우는 좌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다. 결국 편전은 당초 입식 건물에서 좌식건물로 바뀌게 된 셈이다. 편전이 입식건물에서 좌식 건물로 바뀐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편전 자체의 기능상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편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방식의 변화이다.

본래 편전의 기능중 중요한 것은 常參과 經筵이다. 상참은 왕과 신하가 한 달에 두번 정도 공식적으로 접견하는 의례를 치르는 것이다. 이 때 왕은 어좌에 앉아 신하들의 절을 받게 되는데 실내에는 남향하여 왕이 앉은 옥좌인 御榻이 설치되게 마련이고 五峯屏風이 둘러쳐진다.²²⁾ 어답을 놓고 신하가 절을 올리는 등의 의례를 행하는 데에는 실내 바닥은 전들이 더 적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연은 학식 있는 신하가 왕께 경서를 강론하는 것이다. 상참과 경연외에 편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왕과 고위 관료가 마주앉아 나랏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이 경우 당초의 의자식보다는 좌식이 더 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편전이 전들 건물에서 온돌과 마루 건물로 바뀐에 따라 본래의 상참의식은 변질될 수 밖에 없었고 생각된다. 온돌과 마루로 된 좌식 건물 실내에 입식구조에 쓰이던 어답이나 오봉병풍을 치는 것은 실내구조상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경연이나 일상적인 어전의 회의는 의자식에서 좌식으로 변하면서 잘 수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종실록에서 왕은 경연을 할 때 사정전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그것이 불편하므로 "이후로는 사정전에

서 교의나 상함을 치우고 편하게 앉을 것이며,입시하는 신하들도 앞에 가까이 와서 아대를 하게 할 것"을 명한 내용에서 뒷받침된다.²³⁾ 이것은 다시 말하면 편전에서 의례적인 행사인 상참 의식이 위축되고 그 대신 신하와 왕의 실제적인 회의등이 더 중시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⁴⁾

결국 회정당이 편전이 됨에 따라 궁궐 공간구성에서는 외전의 영역이 내전쪽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편전의 기능이 전들바닥 건물에서 온돌과 마루 바닥 건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편전 자체의 기능상의 변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궁궐내 중요 건물인 편전이 입식에서 좌식으로 실내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結

熙政堂은 본래 왕의 학문소인 修文堂이었다. 1496년에 건물을 고쳐 지으면서 이름을 고쳤는데 「政」자를 사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학문소에서 정치기능을 갖는 건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의 건물형태는 확인할 수 없고 17세기의 모습을 보면 건물 위치는 침전인 대조전의 바로 앞에 놓이고 건물 전면에 높은 들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목조 건물이 올라서서 마치 누각과 같은 외관을 하고 있으며 실내 바닥은 온돌과 마루가 혼용된 모습이었다.

회정당과 유사한 건물은 昌慶宮의 崇文堂, 慶熙宮의 興政堂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흥정당은 건물의 위치나 형태 실내 구조등에서 회정당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仁慶宮의 和政堂 역시 회정당과 유사한 기능이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건물이 모두

23) 『中宗實錄』 37年 11月 丁未

24) 편전이 회정당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된 뒤에도 선정전은 상참과 같은 왕과 신하의 공식적인 접견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이 어답에 앉고 신하들이 서서 왕에게 예물 올리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여전히 선정전이 이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정당이 편전이 되면서 이러한 의자식의 상참의식이 빈번하게 행해지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2) 『國朝五禮儀』 卷3, 「常參朝啓儀」에 의하면 상참시 왕은 북벽남면하여 어좌에 앉고 신하들은 동서로 나뉘어 의정부와 이조 호조 예조의 당상 당하관과 사헌부 감찰등은 동쪽에 서고 종친부와 의빈부등의 당상관과 병조 형조 공조 당상 당하관은 서쪽에 侍立하였다가 왕께 나와 절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

17세기초 광해군때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회정당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회정당은 17세기말에는 왕실의 공식 기록인 궁궐지에 便殿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19세기에 가면 완전히 본래의 편전인 宣政殿에 대신해서 궁의 유일한 편전으로 자리잡는다. 마찬가지로 경회궁의 흥정당 역시 18세기말에는 유일한 편전으로 기록된다.

선정전에 대신해서 회정당이 공식적인 편전으로 전용되는 것은 궁궐의 공간구성상의 변화를 초래하며 또한 종래 의자식의 입식에서 진행되던 편전의 기능이 온돌과 마루의 좌식 건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선정전은 정전인 인정전 바로 동편에 위치하였다. 또 실내 바닥은 전들로 되어 그 위에 임금이 앉는 어榻을 놓았었다. 이에 반하여 회정당은 침전인 대조전의 바로 앞에 위치하였고 실내 바닥은 온돌과 마루로 되었다.

편전이 선정전에서 회정당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 편전기능이 정전 측면에서 침전 정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편전이 속한 외전의 영역이 내전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전들 바닥인 선정전 대신에 온돌과 마루 바닥인 회정당이 편전이 됨에 따라 상참과 경연과 같은 편전의 본래 기능에

는 일부 변질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변화는 궁궐내 중요 건물인 편전이 의자식의 입식공간에서 온돌, 마루로 된 좌식 공간으로 전환된 점이다.

경회궁의 흥정당은 회정당과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겪었다. 본래 편전이 되어야 할 자정전 대신에 흥정당이 편전이 된 것이다. 여기서도 궁궐내 공간구성이 변화하고 실내가 입식에서 좌식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 창덕궁과 경회궁은 조선후기 궁궐을 대표한다. 이 두 곳에서 동일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변화가 조선후기 궁궐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말한다. 결국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편전기능은 종래 정전에 인접한 건물에서 침전에 인접한 곳으로 변경되었고, 실내는 입식구조에서 좌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수문당이 회정당으로 당호 변경을 한 것은 15세기말인 1496년이였다. 그리고 17세기말이 되면 회정당은 편전으로 기록에 나오기 시작하고 19세기초에는 완전히 선정전에 대신해서 편전으로 자리잡는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듯이 조선시대의 궁궐은 내부적으로 부단히 변화를 겪으면서 전개되어 갔다. 그 중에도 회정당은 궁궐 전체 공간구성의 변화와 실내에서 입식이 좌식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高麗史

國朝五禮儀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昌慶宮修理所儀軌

昌德宮修理 都監儀軌

承政院日記

弘齊全書

林下筆記

韓星國：「仁慶宮考」, 『郷土서울』, 제21호, 1969.

金東旭：「仁祖朝의 昌慶宮 昌德宮 造營」, 『文化財』, 제19호, 1986.

金東旭：「17世紀의 昌德宮 內殿 造營」, 『壬辰倭亂以後의 造營活動에 對한 研究』, 韓國文化財振興技術協會, 1992.

文化財管理局編：「昌慶宮重建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91.

On the Huijongdang's Diversion to Pyonjon of the Changduk Palace in the Chosun Dynasty

Kim, Dong Uk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In Pyonjon, Kings received high-ranked officials, heard preachings of classical literatures. State affairs were also discussed here. In palaces of the Chosun Dynasty, Pyonjon used to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building second to the main hall. In Changduk palace, Sonjongjon was the original Pyonjon. But, before the end of the 17th century, Huijongdang began to be called Pyonjon, and after the 19th century, Huijongdang became Pyonjon officially. Sonjongjon was located beside the main hall, while Huijongdang before the King's bedroom. The floor of the former building was covered with brick but Huijongdang covered with ondol and wooden floorings. In Sonjongjon, every man sit on the chair, but in Huijongdang King and officials used to sit down on the floor. The fact that Huijongdang became Pyonjon replacing to Sonjongjon meant change of building arrangement in the palace and usage of inner space.